

## 여호수아의 죽음(사사기 1:1-3)

### [요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 [읽을 거리]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 나오는 순간 이미 그들에게 붙여졌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번번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때에는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여 땅을 얻지 못하더니, 여호수아 때에는 나태함과 방심함으로써 땅의 일부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전역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안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나안 통합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사망은 백성을 침울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망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의 꿈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망 후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유다 자손으로 하여금 나가 싸우도록 말씀하셨고, 시므온도 이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망이 멈추었던 전쟁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듯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픔과 아쉬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싸움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의 시작을 알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짐이 또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 [묵상]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어짐으로 생명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 할 수 있습니다.

## 행한 대로 거둠(사사기 1:4-7)

### [요절]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칠십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삿 1:7]

[읽을 거리]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시작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순종은 곧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지속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의 과정에서 만난 아도니 베섹은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는 성경의 내용으로 보아서 매우 난폭하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가 정복한 땅의 왕을 잡아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그의 앞에서 기도록 하여 수치를 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는 반대의 자리에 서서 엄지 손가락을 잘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에 대하여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라는 말을 남기고 무리들에 의해 끌려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 베섹의 고백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한 대로 거둔다는 사실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영적이지만 육적으로 게으르다면 가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으로는 성실하지만 영적인 일에 게으르다면 그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성장시켜 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 받는 일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유다 지파가 주는 싸움의 교훈(사사기 1:9-20)

[요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

[읽을 거리]

유다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한 전쟁을 통한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그들은 그 싸움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는 하였지만 철저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하다가도 철 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눈앞에 있는 대적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싸워 이기다가도 거대한 힘 앞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대상의 강함과 약함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지만 거대하고 위엄 있어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작고 약하고 어리기까지 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힘없이 무너졌고, 결국 그의 칼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유다 지파가 치렀던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동일한 싸움을 치러야 했던 다른 지파들에게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과 역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일은 결국 많은 이들에게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나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결국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믿음을 따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이 생활가운데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철저하지 못한 전쟁의 결과 속에서도 변함없이 땅을 차지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가 헤브론을 얻은 것은 순전히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수 14:6-15)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불순종(사사기 1:22-36)

#### [요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 하였더라(28)

#### [읽을 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쫓는 일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수하에 두어 일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음으로써 우상숭배를 두려워하거나 경계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후대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끊임없는 분쟁 속에 있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편리함과 자유 때문에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결국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전체가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분쟁의 원인이 불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불순종, 또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40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겨우 한 세대를 지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릇된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삶에 깨달음이 없다면 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림자인 구약의 역사와 율법이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을 수 있으나 계속 알고 배우는 까닭은 역사를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보장된 미래를 가꾸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삶을 설계해 가시길 바랍니다.

### 책망 받는 이스라엘(사사기 2:1-5)

#### [요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3)

#### [읽을 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한 번 세우신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보다 분명하게 그들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우상의 단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안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을 용납하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장차 매년 뿌려지는 짐승의 피가 아닌 단번에 뿌려질 구세주의 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인색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등을 돌리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사단이 이용한 뱀의 거짓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배도와 불순종이 시작되었듯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단의 속성을 약속의 이행 여부에 기준을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게도 약속의 이행여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어떤 이가 거짓말을 일삼고 다닌다면 그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철저하리만큼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설계해 가시길 바랍니다.

## 여호수아의 충성(사사기 2:6-9)

[요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7)

[읽을 거리]

여호수아의 충성은 단순히 그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장로들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믿음을 유지해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로만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자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도자는 삶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듯이 지도자의 모범적인 믿음의 삶은 반드시 그의 제자들에게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신앙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듯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는 말씀을 들려주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물질을 들여 과외공부를 시키지만 오히려 실력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쳐지고, 정서는 황폐화되어 가고, 범죄는 늘어나는 이유가 근본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는 교육은 오히려 위험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구원과 반복되는 범죄(사사기 2:10-23)

[요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였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어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18,19)

[읽을 거리]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범죄와 형벌,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다시 범죄하는 모습은 비록 짧은 이야기지만 인류 역사의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영적 지도자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영적인 방향을 거듭하며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일군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군을 세우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즉 갈급해 있는 백성에게 그의 사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일군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세가 없다면 일군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세대 속에 일군은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사사기 3:1-6)**

[요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3:4)

[읽을 거리]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들과 혼합이 되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왕에 가나안에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시험할 민족을 남겨 두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여차피 멸망 당할 사단이라면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개입되는 것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각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가운데 있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 4:7) 부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웃니엘을 통한 구원(사사기 3:7-11)**

[요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3:9)

[읽을 거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으로 하여금 8 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지배토록 합니다. 결국 고통을 견디다 못해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메소보다미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40 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반복하시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실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범죄케 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비 진리와 거짓 복음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옴과 같이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한 시험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범죄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범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의연한 자세로 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에훗을 통한 구원(사사기 3:8-30)**

[요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원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15)

[읽을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를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신앙의 회복여부에 언제나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상대로 하나님은 수시로 환경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각종 환경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식하는 성도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압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에훗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그가 왼손잡이인 까닭은 오른손이 없는 불구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팔이 되셔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싸움의 성패가 얼마나 용감하고,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그러한 것들이 좌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불구의 몸이었던 에훗을 택하셨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는데 있어서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 에브라임 산지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모압 맞은 편 요단 나루 곧 길목을 지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 일만 명 가량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임으로써 모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이후 80년 동안의 세월을 태평하게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데서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 전략을 통해 모압을 섬멸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나누어준 것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책망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적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세상을 계획성 있게 설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에 대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설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 **삼갈을 통한 구원(사사기 3:31)**

[요절]

에훗의 후에 아낏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든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사사기 3:31)



[읽을거리]

에훗에 의해 쫓겨난 모압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 반면에, 블레셋은 요단의 남서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모압과 블레셋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사단의 공격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대적의 형태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크고 작은 대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큰 싸움은 이기고, 작은 싸움에는 실패하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큰 성 여리고는 무너뜨렸지만 작은 성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작은 죄라도 철저히 싸워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삼갈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600 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평범한 목자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군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인간적 조건을 가리시는 법이 없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두드러지기 사용하시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세리였던 마태 같은 이들도 평범한 자들이었으며, 농부였던 기드온, 불구자인 에훗,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군을 세우심에 있어서 환경에 관계없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군을 오직 한 가지의 기준 위에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 안에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군 된 자로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 받기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여 선지자 드보라(사사기 4:1-11)**

[요절]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뻘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사사기 4:4,5)

[읽을거리]

80 년 동안 안정을 누리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 학대를 당함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의미는 그 안에서 누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안정되고, 육신이 행복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방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는 당시의 편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여자는 종과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종려나무에서 재판업무를 수행하였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무척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나,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여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선지자, 왕, 제사장 중에 드보라를 제외하고는 여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본다면 여자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드보라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나 남자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안에서는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매우 지혜로워서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바락을 불러서 함께 일을 감당해 갑니다. 비록 바락은 믿음이 부족한 자였지만 드보라는 그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조력하며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되는 일이 없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란 너무도 벅찬 일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3-6)

## 시스라 군대와와의 싸움(사사기 4:12-16)

### [요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파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15)

### [읽을거리]

바락이 다불산에 오르자 시스라는 철병거 구백승과 온 군사를 모아 대적하려 합니다.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락의 군대가 가진 무기라고는 칼이 전부였습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력한 힘으로 압도하려 들 것입니다. 이를 육신의 지혜와 힘 가지고 싸우려 한다면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들려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칼입니다. 막강한 시스라의 군대에 맞서 칼을 들고 선 바락의 군대와 같이 오늘날 사단의 막강한 힘 앞에서 말씀의 칼을 들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히 4:12;엡 6:17). 이 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이 군사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시스라와 대적할 때 대적을 파하고, 시스라는 도망하는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수없이 대왔지만(삿 1:19),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 다윗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임했을 때 그의 머리를 부수고, 그의 칼로 목을 벨 수 있었던이(삼상 17:41-54), 싸움은 결코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싸움의 승리가 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사사기 4:17-22)**

##### **[요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쥍에 박으매 꿇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4:22)

##### **[읽을거리]**

야엘의 남편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바락과의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그의 집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시스라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야엘을 장막 말뚝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야빈의 수장이었던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대적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남은 대적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한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을 통해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육신적인 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야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기 위해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을 동시에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들의 연합된 힘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제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협력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각자가 지닌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나누었을 때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과연 목사를 도울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방법임을 알아 서로 협력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사사기 5:1-31)**

[요절]

너희 왕들이 들으라 방백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5:3)

[읽을거리]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드보라와 바락은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들이 드린 찬양의 내용은 승리의 요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나,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이 자신의 의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막상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들을 흔히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했으면서도, 모든 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깟지어다 깟지어다 드보라여 깟지어다 깟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12)라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을 교만에 내어 버려 두지 않기 위해 자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사단의 덫에 걸려 드는 경우를 흔히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밧세바를 강간하는 죄를 범하였고, 베드로도 밤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막기 위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도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만 계속하고 있다면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을 경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전쟁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결론지어 말하기를 "주의 대적은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된다"(31)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가르침이지만 이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급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유혹하고 있지만 다만 한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소망이 있으며,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는 이 한가지 사실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생활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미디안에게 압제 당한 이유(사사기 6:1-10)**

[요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6:10)

[읽을거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또 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미디안의 칼을 피해 산에다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고, 농사를 위하여 씨를 파종하면 미디안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올라와서 식물뿐만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김없이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난을 피할수록 더욱 큰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눈 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근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혹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고통 당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데 있었습니다(10).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고, 섬기지도 말 것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이미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고, 또한 그 땅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압제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 몸은 영적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몸을 주관하시도록 맡겨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여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고 의식한다면 또다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며, 언제나 깨어 있는 자세로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녀 됨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기드온을 부르심(사사기 6:11-24)

#### [요절]

여호와(Lord 주 KJV)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16)

#### [읽을 거리]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와 사자(주의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기드온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찌해서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반문합니다.

주님은 기드온을 향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즉 그는 적은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드온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표적을 구하고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자 주님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요할 정도로 기드온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계속되는 거절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은 기드온의 탁월한 재능과 지도력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만들어 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0, 19)

#### **여호와 살롬(사사기 6:19-24)**

[요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24)

[읽을 거리]

거듭되는 기드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던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마지막 요구마저도 수용하십니다. 기드온은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지고 반석 위에 두고 국을 쏘으라는 주의 천사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고, 주의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는 순간 반석에서 불이 나와 예물을 불 살랐고, 주의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기드온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의심과 육신적인 열등감 속에 있었던 그 앞에 나타났던 것은 분명한 주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도 끊임없는 불순종을 거듭했던 그로서는 당연히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드온을 위로하시고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각종 예물들과 반석, 불 등이 가져다 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헌신, 예수님, 성령, 심판 등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드온이 자신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군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참 된 일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신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알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군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자신의 신분을 알고, 죄인 됨을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라(사사기 6:25-27)**

[요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주)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27)

[읽을 거리]

주님은 이미 헌신을 다짐한 기드온을 향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찢고 수소를 취하여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이미 주의 나타나심을 본 상태인지라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섬겨 온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찢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행동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종 열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쪼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조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고후 6:15)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각종 이교적인 관습들과 율법적인 행위들을 말할 수 있겠고,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돈, 명예, 권세, 세상 지식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겁해 보이는 기드온의 행동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조용하게 넘어가려는 기드온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속성은 늘 존재합니다. 성품이 직설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문제에 대해 조용하게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많은 부딪힘이 예상될 때 그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안과 밖으로 존재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혹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쓰시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욱 불순종하고, 비겁하며, 소극적이기까지 한 기드온도 일군으로 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바알 단 앞의 백성들(사사기 6:28-32)**

[요절]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32)



[읽을 거리]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무너지고 찌꺼진 모습을 본 성읍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일을 한 사람을 추적한 결과 기드온이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끌어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백성들 앞에서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기드온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친 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된 사실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따르는 결과에 관해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을 듣고 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현실적으로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에 의해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그들의 수준은 바알과 아세라를 부순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려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월이 우리가 한 사람의 종교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총칼을 가진 전쟁은 수 천명이 희생하지만 종교로 인한 전쟁은 수십, 수백만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한 틀 안에서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허울로 자신들과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조차 잊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주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과 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지 결코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묵상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기드온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본질을 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역행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 위기 속의 새로운 출발(사사기 6:33-35)

[요절]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35)

[읽을 거리]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숴뜨린 일로 쟁론할 즈음에 주변의 정세는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다시 그들의 약탈과 수난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에서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이 기드온과 함께 함으로서 아비에셀 족속을 중심으로 므낫세, 아셀, 스블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대적들의 연합된 공격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명분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고민하며, 심한 열등감 속에서 빠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위기야말로 기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수 천명의 회심자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겨났지만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 베임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든 이들은 복음의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복음을 땅 끝으로 전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서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역교회를 세워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위기를 통하여 일군을 세우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어 갈 때 일군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존 낙스, 존 번연, 위클리프, 후스, 루터, 칼빈 등이 바로 위기 속에서 쓰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비 진리에 대항하여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던 몬타니스트, 노바티안스, 도나티스트, 폴리시안스, 카타리, 알비젠스, 보고밀 그리고 재침례교도 들에 이르기까지 열거할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깨어 있는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온전한 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지만 공통 같은 거대한 집단은 미동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위기의 상황이 급박해 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일군을 세우셔서 성경적이고도 온전한 교회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군들을 불러모으시고 기도하게 하며,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시대적인 분별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 **변함없으신 하나님(사사기 6:36-40)**

[요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39,40)

[읽을 거리]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또한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 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사면 땅에 두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이 마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믿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고, 다시 양털이 마르고 사면 땅이 젖으면 믿겠다고 하는 요구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제아무리 많은 표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들은 끝 날까지 의심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3 년 반이나 따라다니던 도마도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인간은 의심 많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만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확인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20:29) 오히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했던 백부장은 그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마 8:10)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전쟁 준비(사사기 7:1-8)

#### [요절]

여호와(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7)

#### [읽을 거리]

기드온을 따라 모여든 군사들은 32,000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적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 22,000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나 남은 수도 많다고 말씀하시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 명을 제외한 혀로 물을 핥는 자 9,700 명을 돌려 보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300 명으로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쟁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자의 하나로 두려워 떠는 자를 들 수 있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단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전쟁에 합당치 않은 자의 모습으로는 강을 핥는 자의 모습으로 경계하는 자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는 결코 적군의 동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깨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방심하고, 경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즉시 그를 삼키려 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우리가 300 명의 군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대등한 상태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하나님은 적은 수를 가지고 전쟁을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려는 언제나 사실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승리로운 삶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은 수적인 우세가 아니라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적은 무리된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묵상]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무기는 언제나 깨어 있는 자세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이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 꿈과 해몽(사사기 7:9-18)

##### [요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 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15)

##### [읽을 거리]

전쟁을 앞 둔 기드온의 상태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하였던 부락을 데리고 적진으로 정탐을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눈 앞에 보이는 것은 무수한 적군들뿐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하였는데 보리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쓰러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자는 그 꿈은 기드온의 칼날이 미디안과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고 해몽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주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드온은 300 명의 군사를 이끌고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과 구원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한 기드온의 모습, 그러나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습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건다가도 거친 파도를 보며 두려움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처럼, 또는 풍랑 앞에 약해지는 베드로처럼 연약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때마다 사람을 통하여, 혹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싸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처럼 부르시고, 세우시며, 때로는 확신을 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전쟁터에서 깃발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불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항아리를 부수라(사사기 7:19-25)**

[요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죄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20)

[읽을 거리]

주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하시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의 전쟁놀이를 연상케 합니다. 10 만 명이 넘는 대군을 300 명의 군사로 대적하면서 가진 무기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해하려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의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 전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제시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싸움에서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횃불과 나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횃불과 나팔이 항아리 속에 있는 동안에는 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 횃불과 나팔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적군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하시도록 한 이유는 주님이 싸움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항아리가 부서졌을 때 햇불과 나팔이 드러났고 대적들이 놀라 도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사단의 세력이 놀라 도망하는 결과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그 빛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승리의 소식은 결코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자아가 깨어지는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항아리를 깨고 나와 햇불을 들고 나팔을 불 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리우는 자아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에브라임의 시비(사사기 8:1-3)

#### [요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오렙과 스넵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3)

#### [읽을 거리]

미디안과의 전쟁 과정에서 뒤늦게 참전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넵의 목을 가지고 기드온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미디안의 꾀박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드온을 주목하여 보다가 전쟁에 승리의 기운이 보이자 참전하여 큰 공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처럼 눈치만 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 동참하여 자신의 공과를 드러내려는 자들이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이미 초기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기드온의 300 명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햇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순간 이미 전쟁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 전쟁을 이미 끝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뒤늦게 참여하여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욕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공적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낮추고 그들을 높임으로서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32)

기드온의 입장에서 전쟁의 말미에 와서 시비하는 에브라임이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을 높임으로서 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도자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그마한 공과도 인정할 줄 알고, 높일 줄 아는 겸손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여서 이 시대의 일군으로 쓰실 것이며, 다른 이들의 시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피곤하나 따르며(사사기 8:4-9)**

[요절]

기드온과 그 좇은 자 삼백 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4)

[읽을 거리]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 명의 용사는 미디안 사람들의 뒤를 쫓느라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을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은 숙곳 사람들과 브두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쳐있는 군대에게 먹을 양식을 구했지만 모두 거절합니다. 결국 지쳐있는 상태에서 미디안과 싸웠지만 은혜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록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군사들은 이 싸움을 포기했을 때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야 하기에 결코 싸움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즉 각종 죄와의 싸움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때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이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워 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조롱하며, 멸시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채찍과 가시관,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이들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수난 뒤에는 반드시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이 주는 아픔을 뒤로하고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며, 조롱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그들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중단 없이 지속해 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십 삼만 오 천명의 대적(사사기 8:10-21)**

[요절]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자 십 이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일만 오 천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10)

[읽을 거리]

기드온이 대적했던 군사의 수는 자그마치 십 삼만 오 천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엄청난 수의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 300 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싸움의 열기를 더하면서 에브라임을 포함한 각 지파에서 숫자를 보강했지만 그의 군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싸움을 하려 한다면 이미 그 싸움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철학이나 지식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주신 적은 은사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따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비록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21)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숙곳과 브드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심판을 가합니다. 그들을 지도자인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죽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드온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7,9)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멸시와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 날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의 형편이 매우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지라도 심판 날에 있을 칭찬을 기대하며, 또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용기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사사기 8:22-28)

[요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23)

[읽을 거리]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즉 그들의 왕이 되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친히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주님의 왕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소비합니다. 교단장이 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지불되기도 하고, 치열한 정치적인 암투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명예를 쫓아 다니는 자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이방 종교들과 손을 잡는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한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도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족속에게서 빼앗은 금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봇은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으로 좋은 의도에서 제작했지만 결국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올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27) 그의 헛된 열심히 결국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해 지고 부패해 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승리의 뒤에는 이처럼 죄의 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뒤에는 밋세바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고, 솔로몬의 승리 뒤에는 많은 이방 여인과 부귀,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의 승리 뒤에는 혈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 수 없이 회개하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은 승리감에 도취하지 말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의 삶을 누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반복되는 우상숭배(사사기 8:33-35)**

##### **[요절]**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33)

##### **[읽을 거리]**

기드온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또 다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빌미는 이미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금귀고리로 에봇을 만들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적은 실수 하나가 그의 죽음과 더불어 곧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를 기억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았던 것과 비교하면 지도자의 신중함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함을 겸비한 지도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물질과 지식을 무기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만 결국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이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와 같다면 당신이 지도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한 교회 지도자의 몰락은 곧 교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 까닭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27)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들, 즉 비 진리와의 적당한 타협과 반 복음적인 문화의 수용 등은 지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미국의 장로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의 교회를 인정했고, 여자 목사는 이미 한국에서도 수 십 년 전에 받아들여졌으며, 이방 종교의 절기와 의식을 이미 기독교화 하여 지키고 있는 것도 몇몇의 지도자들에 의해 수용된 상태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지도자의 자세는 결국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에게도 이러한 신중함은 요구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누룩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와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피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혈연관계가 주는 결과(사사기 9:1-6)**

#### **[요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2)

#### **[읽을 거리]**

기드온이 죽은 후 누구도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때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서 자신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계획에 동조하여 말째 아들 요담을 제외한 기드온의 70 명의 아들을 모두 죽이고 결국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8:22,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혈연을 이용하여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권세를 향한 욕망이 형제들을 살생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혈연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혈연관계라는 것은 냉정함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출세가 자신의 출세이며, 살아가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정당함이나 공의로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미 팽배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혈연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이 민족에게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혈연관계에 매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로 아비멜렉보다 교훈 될만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혈연관계에 매어 있다면 불화와 분열은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많은 선한 이들이 그 속에서 희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혈연관계를 통해 권세를 얻은 자들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크고 작은 분열과 분쟁의 원인도 혈연관계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면 믿는 이들이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알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요담의 비유(사사기 9:7-21)

[요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5)

[읽을 거리]

아비멜렉의 잔인한 살생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 남은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아비멜렉의 잔인성과 부당함을 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왕이 되어 달라는 주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또한 자신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고 있으므로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말로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는 말을 함으로서 오히려 걸림이 될만한 것들은 남겨두지 않고 모두 멸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우리는 요담의 비유를 통해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또 하나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감람나무는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로 달고 아름다운 실과를 공급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술을 내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남에게 베풀며 느끼는 작은 기쁨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광을 얻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이 자신들로 인해 즐거워할 때 기쁨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남들에게 기쁨을 줄만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들 위에 군림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 비로소 기쁨을 느끼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남이 당하는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가시나무였던 아비멜렉은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인 그의 70 명의 형제들을 모두 죽입니다. 세상에서도 비 진리가 진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멸망할 것이라는 요담의 예언처럼 세상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남을 위한 작은 기쁨에 행복해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세겜 사람들의 배반(사사기 9:22-25)

### [요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23,24)

### [읽을 거리]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선동하여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하고 사악한 그들의 행위를 결코 용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분쟁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분쟁이 일게 되어 모두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들은 그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죄가 기초하고 있다면 반드시 멸하십니다. 아비멜렉은 3 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백성들은 그 동안 그를 따랐고 그의 장기 집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게 하심으로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현재 어떤 기초 위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가지고 온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책망 받고 버림받았듯이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나 망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자리에는 언제나 또 다른 불법이 자리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반드시 물질로 인해 망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세를 얻은 자는 또 다른 부정한 사람에 의해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초 위에 모든 집들을 지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함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시작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겹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겹을 가지는 자는 다 겹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52)

## 에벳의 아들 가알의 배반(사사기 9:26-49)

[요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26)

[읽을 거리]

세겜 사람들의 배신에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은 가알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함께 한 그에게 있어서는 방법이 선택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이용하여 아비멜렉을 뒤에서 저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전쟁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조직적이고도 우세한 아비멜렉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패하고 세겜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의 권력도 혈연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세겜 백성의 배반에 이은 가알의 배반도 역시 혈연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가알의 주장은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첩의 신분으로서 세겜 사람이었지만 가알은 세겜의 토박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세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가알의 뒤를 따랐고 아비멜렉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직도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가알의 배반을 가만 두지 않았고 완전히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큰 불법이 작은 불법을 물리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를 멸망시키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만일 가알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면 더욱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 타락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그리스도인의 생리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역 감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과 적당한 타협이 없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고, 거짓말의 능력에 따라 정치력을 평가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생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민의 선택 운운하며 서로의 정당함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두 멸망 당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과 가알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멸망 당할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맷돌에 맞아 죽은 아비멜렉(사사기 9:50-57)

### [요절]

한 여인이 맷돌 윗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53,54)

### [읽을 거리]

아비멜렉이 세겔 사람들의 배반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들을 멸하고 남은 자를 추적할 때에 아비멜렉의 칼 앞에 곧 죽게 된 한 여인이 무심코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그의 머리가 깨졌고, 죽음을 앞두게 된 아비멜렉은 군사 한 명을 불러서 여인에게 맞아 죽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칼로 자신을 찌르도록 함으로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70 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 노릇을 했던 아비멜렉은 3 년이라는 짧은 세월의 통치를 뒤로하고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토록 잔인하고도 막강했던 아비멜렉이 연약한 여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처럼 약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에도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세와 명예, 그리고 돈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이것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시편 1:4)

이 시대에도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쟁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아비멜렉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잘 못을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 가면서도 오히려 여인에 의해 죽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까지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묻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이 땅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 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생명이 죽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세상 사람들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면서 까지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자존심은 사실상 주님과 원수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삶을 통하여 겸손으로 무장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돌라와 야일 (사사기 10:1-5)

### [요절]

아비멜렉의 후에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밧에 거하여 .....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1, 3)

### [읽을 거리]

돌라와 야일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한다면 사역에 대한 행적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역했던 시기가 아비멜렉이 죽은 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그들의 공로를 든다면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지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수 없었고, 이방민족들의 공격을 받은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지도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은 것으로 성경에서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이러한 평화로움은 아비멜렉의 잔인한 통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대하는 포악한 모습과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까닭에 백성들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평범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별로 특기할만한 것이 없는 그들을 통하여 백성이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심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된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더 많은 평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을 빼고는 어떤 극적 상황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 역사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하지 않지만 단 한 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한 가운데 서 있는 일꾼입니다.

## 다시 시작되는 배교(사사기 10:6-9)

### [요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 (6,7)

[읽을 거리]

돌라와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그들의 숭배 대상은 종전에 바알과 이스다룻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변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이스다룻을 비롯해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모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 의해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지만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일들은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로 들립니다. 그들은 처음에 교회의 연합을 꾀하면서 바알과 이스다룻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정교회 등과 연합하여 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종교통합을 이루겠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각종 우상의 처소로 만들겠다고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한 교회는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 촛대를 두지 아니하시고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장소)에서 옮기리라』 (계 2:5)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변질된 각종 거짓 진리를 몰아내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라면 각종 의식과 절기들을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수없이 보여 주셨지만 슬그머니 다가온 이방 신들의 유혹에 빠졌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은 깨어있지 못한 교회에 슬그머니 다가와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여지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고민(사사기 10:10-18)**

[요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6)

[읽을 거리]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반복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저들의 기도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구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단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버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아직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통보에 대하여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그들을 버리시기로 이미 작정한 바 되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들을 뿌리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또 다른 사사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보실 수도 없으신 분으로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과 배도에 지치신 분이시지만 돌아오는 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죄가 너무 커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인격을 가지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회개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그 오른편에 앉히실 것입니다.

### 길르앗 사람 입다(사사기 11:1-3)

#### [요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돌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1-3)

#### [읽을 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작정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개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할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의 출생의 배경과 환경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즉 창녀였는데 입다의 형제들은 그 사실을 들어 집안에서 쫓아냅니다. 결국 그는 돌 땅에 거하면서 잡류들, 즉 가난하고 유리하는 자들을 모아 후에 길르앗 장로들이 도움을 요청한 사실로 보아 강력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이유는 사실상 그의 어머니가 창녀였다는 이유라기보다는 재산문제로 보는 것이 더 옳은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는 형제들의 말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유산 문제를 놓고 가족들이 갈라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3 대를 넘기지 못하고 패가망신하는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원수를 만들고 그의 몰락을 위로하기는커녕 즐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몰락을 거듭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정을 받지도 못한 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입다의 태도입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비록 버림받았지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같이 그의 형제를 죽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마을을 떠났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지만 어떠한 계락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찾아 온 것을 보면 상당히 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수용하고 자신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재 침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일삼으며 서로 싸우는 이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부디 입다와 같이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입다를 세우심(사사기 11:4-11)**

##### **[요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주 앞에 고하니라(11)

##### **[읽을 거리]**

이미 형제들에 의해 외면을 당했던 입다는 돕 땅으로 쫓겨났지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발생이 되자 다시 입다를 부르기 위해 장로들이 보내졌고 그들과의 사이에 협상이 별이게 됩니다. 사실 입다의 주변에는 허영심 많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3) 그의 지도력과 군대는 당시의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로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입다를 찾은 장면을 통해 볼 때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입다는 사람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처지였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홀로 서서 그의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사실은 그가 비록 형제의 곁을 떠나기는 했어도 주님마저

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싸움의 결과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9), 증인으로 주님을 세웠으며(10), 이스라엘의 대장이 된 후에도 자신의 말을 주님께 고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11). 입다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분이 천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주님마저도 버리는 이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세상에서의 신분과 처지를 고려해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귀한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의 것으로 부끄러워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일군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자격 요건을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쓰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자세도 입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입다와 암몬왕의 논쟁(사사기 11:12-28)**

##### **[요절]**

내가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 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단할지니라하나(27)

##### **[읽을거리]**

암몬왕은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의 땅이 암몬 또는 모압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13). 그에 대해 입다는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정당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래 암몬, 모압, 에돔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신 2:5,9,19), 그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한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15-18), 이스라엘이 아르논을 점령할 당시에는 시혼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과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고, 또한 모세 당시의 모압 왕 발락은 결코 그 땅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음을 상기 시킵니다(25).

입다는 그의 출신이 비록 천한 신분이어도 매우 분명한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암몬 왕의 시비에 대하여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지킬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이러한 역사적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의 전쟁은 명분 없는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지식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었고, 그의 지도력이 범상치 않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단순한 힘과 열정만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열정이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명분 없는 싸움만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진리 위에 믿음의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만일 거짓진리 위에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다 명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바른 지식, 즉 진리로 무장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 입다의 서원(사사기 11:29-31)

##### [요절]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를 태우는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30,31)

##### [읽을거리]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천하고 무능할 수 밖에 없는 신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로 승승장구하여 암몬 자손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배후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29)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성급한 결단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자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승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또한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금까지의 수모를 만회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소망은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한 집착이 그로 하여금 서원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서원은 결국 자기의 딸을 죽여야 하는 더욱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 조건부의 기도를 하기도 하며, 뜨거운 믿음을 선보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잠재울 능력을 주셨으며,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을 곤경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사사기 11:32,33)

[요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 그들과 싸우더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32)

[읽을거리]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싸움의 승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입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일 뿐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미니스에 이르기까지 스무 도시를 치고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크게 살육함으로써 암몬 자손은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입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암몬 왕은(28)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암몬 왕의 교만과 입다의 헌신이 이미 싸움의 결과를 결정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의 결론은 주님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 결정지어졌던 것입니다. 입다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암몬 왕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유명한 싸움의 한 장면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도 이미 들은 바와 같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골리앗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싸움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승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 싸움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싸움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싸움의 결론을 지어놓으신 상태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분께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칫 교만해진다면 패배는 당연한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승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서원의 결과(사사기 11:34-40)

### [요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작은 복을 잡고 춤추며 나아와 그를 영접하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이 없었더라(34)

### [읽을거리]

입다의 경솔함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너무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태우는 헌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바가 있습니다(31). 그의 집에서 나오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은 채 승리를 통한 자신의 수치를 만회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작은 복을 잡고 춤추며 나아와 그를 영접함으로써 자기의 딸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서원은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는 더욱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백성의 사사로서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경솔함으로 인하여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다를 통하여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의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다가 자칫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열정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지만 냉정하게 처신하지 않는 열정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온전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생애를 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열정이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공과에 집착하여 인간적인 조건을 내걸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집착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더욱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은 입다 만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애곡하는 슬픈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솔함과 집착으로 인한 결과는 우리 자신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냉정한 자세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 놓고 그 분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승리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에브라임의 시비(사사기 12:1-7)

### [요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1)

[읽을거리]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 온 이후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에 행했던 시비를(8:1-3) 입다에게 또 다시 재현합니다. 실상 그들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루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자 입다에게 다가와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는 분명히 다른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높여주려 했지만 입다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신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하더니(2) 주께서 싸움을 승리케 하셔서 암몬 자손을 붙여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브라임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거하던 자들이었는데 도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격분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쳐서 42,0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기가 불러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막상 전쟁이 끝나면 등장하는 에브라임처럼,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안정이 되면 찾아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 드는 어리석은 성도들과, 남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만 하려 드는 이들의 모습은 재앙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가 어려운 시험 중에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이기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동참하지 못했다면 겸손한 자세로 이긴 자들에게 칭찬하는 일에도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아름다운 말로 소망을 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돌이키게 하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진노를 일으키느니라"(잠언 15:1)

## **입산, 엘론, 압돈(사사기 12:8-15)**

[요절]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그에게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더니 딸들은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딸 서른 명을 데려오더라 그가 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11,12)

[읽을거리]

입다가 죽은 이후에 입산이 7 년, 엘론이 10 년, 압돈이 8 년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곳, 즉 이방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압돈은 자신의 아들과 손자 70 명에게 한 마리씩의 나귀를 타도록 할 정도로 사사의 자리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들 사사의 배도로 인하여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13:1).

우리는 여기서 멸망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두 가지의 유혹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별되지 못한 삶입니다. 입산은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가 60 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보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더욱 큰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적당한 타협을 함으로서 평화를 가져오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들은 이스라엘에 이방 신들을 들여오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또 다른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엘론은 아들과 손자에게 각각 나귀를 타도록 했는데, 나귀는 당시 교통수단으로 오늘날 자동차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들과 손자 70 명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사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가 왕과는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사치이며, 자신의 명예를 이용한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부패가 용납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이스라엘은 점차 죄에 대하여 무디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또 다시 이방 민족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인하여 복음의 본래의 모습이 점차 퇴색해져 가고 있으며, 일부 유명한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는 관심 없이 육신적인 안락을 유지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 집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삼손의 잉태(사사기 13:1-5)

#### [요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될 것임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5)

#### [읽을거리]

사사들의 부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또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40 년 동안 속박을 받게 됩니다(1). 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단 지파 사람 마노아라 이름하는 이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수태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가 수태하게 될 것이며,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마노아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4), 아들을 낳게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사르(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삼손을 수태시키기 위해서 마노아에게 성결된 생활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함으로서 그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즉 전도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악한 지도자 밑에 선한 자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그 몸을 성결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 받은 마노아와 같이 오늘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제는 그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율법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성령을 통하여 매일 새로워짐으로.....

### 경건한 가정 (사사기 13:6-25)

#### [요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태우는 헌물과 음식 헌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또한 이제 이런 일들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23)

#### [읽을거리]

주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즉시 남편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자 마노아는 즉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받은 말씀을 믿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했고(8),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12). 그리고는 음식 헌물을 드리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불꽃가운데 올라가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자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줄 알고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22), 그의 아내는 오히려 위로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23).

우리는 여기서 경건한 한 가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마노아의 아내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남편에게 가서 이 일을 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모든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부의 갈등의 제일 원인은 서로가 대화 없는 데서 비롯됩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첫째 요건은 부부간에 사소한 대화라도 지혜롭게 풀어놓음으로써 서로가 한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부부 갈등의 원인이 대화의 부족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의 또 한가지 특징은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가 즉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되었는데(8-14), 이러한 사실은 그가 평소에도 기도생활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절대로 기도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중심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의 마지막 특징은 말씀을 들은 마노아가 자신이 행할 일들을 구하는 장면에서 보듯이 순종하는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도를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경건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경건한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잘못된 결혼(사사기 14:1-4)**

#### **[요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혹은 내 온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3)

#### **[읽을거리]**

삼손이 성장하여 결혼할 나이에 이르자 그는 블레셋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녀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이미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넘겨 주사 너로 하여금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함께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네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 것은...(신명기 7:2,3)

사실상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남은 땅이었습니다(수 13:3). 그러나 그 백성은 안정된 삶을 원했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음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결혼하려는 사사의 모습처럼 서로 혼합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일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4). 이 말은 곧 주께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그 분이 친히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행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호세아에게도 율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고자 하셨습니다(호 1:2,3). 그러나 호세아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비록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행하였지만, 삼손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뜻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모습이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었고, 후에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서 그의 사역을 죽음과 더불어 백성을 구원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 넘습니다.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삼손이 20 년 동안을 사사로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은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죄악을 행함(사사기 14:5-11)**

#### **[요절]**

얼마 뒤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본 즉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걸어가면서 먹고 자기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고하지는 아니하니라(8,9)

#### **[읽을거리]**

삼손이 결혼 문제로 인하여 덤밭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삼손은 주의 영의 감동으로 인하여 손에 아무 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고, 여자에게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내려 갈 때에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취하여 먹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가 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사사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즐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도,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먹는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분명한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사르(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만 앓는다면 사사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아무리 많은 범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머리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편이 되어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자세가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보복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16:28).

말씀의 무지함은 결국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담배, 주일 성수, 십일조 등을 잘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허점이 너무도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사탄의 밥이 되어 더욱 큰 범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려면 반드시 말씀을 알고 행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삼손의 수수께끼(사사기 14:10-19)

### [요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능히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히 내게 알리면 내가 얇은 옷 서른 벌과 겹옷 서른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12)

### [읽을거리]

삼손은 결혼 잔치 기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일곱째 날이 이르자 삼손의 아내를 부추겨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도록 요청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며 간청함으로 삼손으로부터 답을 알아내고, 자기 백성의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고 대답함으로써 수수께끼를 풀자 삼손은 분노를 하게 되고 그의 아내를 유혹해서 문제의 답을 알아낸 사실을 지적하고,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들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겹옷을 주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그의 아내는 동무에게 내어 줍니다.

아무리 봐도 삼손에게 진지함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나온 꿀을 먹은 것을 생각하여 수수께끼를 내었고, 서른 벌의 겹옷과 속옷을 줄 것을 약속하고, 그 아내에 의하여 답을 맞추자 30 명의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여 옷을 건네주고는 자기의 아내를 친구에게 맡기고는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결국 그의 생활은 극히 감정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그가 30 명의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주의 영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감정적이고 책임감 없는 삼손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둔하고, 감정적이며, 약한 자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비록 삼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부족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었듯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비록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쓸모 없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 삼손의 복수(사사기 15:1-8)

### [요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뒤에야 멈추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서 예담 반석 꼭대기에 거하니라(7,8)

### [읽을거리]

수수께끼 사건 이후로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자기 아내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상태였으므로 삼손은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우 300 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붙는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그 두 꼬리 사이 한가운데서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나무 조각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곡식 단과 베지 않은 곡식, 포도원과 올리브를 살라버립니다.(4,5)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일을 행했는가를 묻고는 삼손이 그의 아내의 일 까닭에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즉시 그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6). 아마도 보복의 차원에서 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일을 알고 또 다시 삼손은 즉시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살육합니다.

삼손은 힘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가 여우를 이용해 밭을 불사른 것으로 보아 지략까지도 겸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힘과 지혜를 두루 갖춘 훌륭한 사사이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7).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각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능력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정욕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가는 일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의 권세나 명예의 자리로 생각하여 남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남발하는 경우를 흔히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한다면 결국 삼손과 같은 비참한 사역만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능력을 육신적인데 사용한 결과는 끝없는 유혹과 시련뿐임을 기억합시다. 역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육신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유혹과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사사기 15:9-13)

### [요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길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 두 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니라(13)

### [읽을거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에 진을 치게 됩니다. 놀란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협상을 시도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요구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다가가서 그들 결박하여 넘겨 줄 것에 대하여 말했고,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하여 넘겨주되 직접 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 결박을 당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자 삼손을 향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하면서 꾸짖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고는 오히려 삼손을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부도덕한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방 여자와의 결혼, 언제나 술에 취해 사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인을 하는 모습들은 사사로서 권위를 가지기에는 매우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지도자나 그를 따르는 자 모두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는 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분쟁의 원인은 누구의 잘 못도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동들과 성도들의 불신앙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의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자세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언제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매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갈증 해결(사사기 15:14-20)

### [요절]

하나님께서 그 턱의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므로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영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였으니 이것이 이 날까지 레히에 있더라(19)

[읽을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블레셋에 결박 당해 끌려 간 삼손은 결박을 풀고 나귀의 턱뼈를 들어 그것으로 천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권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당시의 계절이 추수기로 매우 건조한 시기였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말랐고, 물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턱의 우묵한 곳을 쪼개시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삼손의 갈증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의 영이 돌아와 회복되고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라 이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귀 턱뼈로 천명이나 죽인 그가 목이 마르다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인 사건에 비하면 목마른 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삼손에게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완전히 영도 소멸되고, 기력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도 쉽게 좌절에 빠지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일을 닦치거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강한데, 오히려 사소한 일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는 데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면서도, 자기 자신 즉 육신의 일을 대할 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 주십니다. 그의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속해 가심에 있어서 성도들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호흡을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 **창녀의 집으로 간 삼손(사사기 16:1-3)**

[요절]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1)

[읽을거리]

블레셋 사람들과의 격렬한 싸움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삼손은 블레셋의 다섯 성읍 가운데 하나인 가자(수 13:3)에 들어가서 창녀를 보고 그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자 사람들은 도시의 성문에 매복하고 아침에 날이 밝을 때에 삼손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개의 기둥과 빗장을 빼어 모두 어깨에 매고 산꼭대기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삼손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마음을 긴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문은 국가의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행동은 블레셋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려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삼손이 사사이면서 나사르(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혼의 실패와 생명의 위협 등으로 인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행위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이방 여인과의 관계로 인해 주의 말씀을 거역하더니, 이제는 창녀와 관계를 함으로서 더욱 발전된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은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말하지만 오히려 구원받았음을 무기로 방종하여 그 죄악이 날로 심각할 정도로 커져가는 성도들을 흔히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오히려 자신의 범죄함을 만회하거나, 육신의 정욕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한 은사나 재능들을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육신을 위해 쓰는 성도들도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결코 우리의 육신의 도구가 되도록 해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성령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경건한 삶을 위해 힘을 쓰는 자세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패로 가는 인생(사사기 16:4-22)**

### **[요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에서 땀돌을 돌리니라』 (21)

### **[읽을거리]**

사사와 나사르(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셨지만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는 삼손은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은 오히려 삼손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지난 죄들에 대하여 눈감아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4). 채찍이 없는 삼손의 생활은 더욱 담대한 범죄를 더해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작정하였도다.』 (전도서 8:11)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삼손은 머리를 깎인 이후에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삼손이 범죄와 함께 영적인 감각조차 무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없도록 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도 죄와 더불어 비밀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그 근원을 잘리듯이, 죄는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드러냄으로 은혜에서 떠나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죄의 또 다른 면은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와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손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4). 그 까닭에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그녀에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17).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왔던 죄의 유혹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4)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죄의 달콤함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바로 알아 이 시대에서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삼손의 마지막 기도(사사기 16:23-31)

##### [요절]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며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며 간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뺏 것을 단번에 원수갚게 하옵소서 하고(28)

##### [읽을거리]

머리털을 잘린 후 두 눈이 뽑히고 족쇄로 결박 당하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25). 나귀 턱뼈로 천명을 죽이던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이제는 그들의 노리개가 되어 비참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람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키워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두 개의 중간 기둥을 양손으로 잡고 힘을 다해 무너뜨림으로 그 안에 있는 삼 천명 가량의 사람들을 덮쳐서 죽이게 됩니다. 눈이 빠진 삼손은 오히려 건강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는 그 자신도 함께 죽음으로서 사사의 임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마지막 기도할 때조차도 자신의 눈 뺏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해달라는 말을 함으로서 여전히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닌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의 자세는 사사와 나사르(나실)인으로서의 자세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삼손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히 11:32). 그의 정욕에 따라 사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상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구원만을 믿고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사사기 17:1-6)

[요절]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6)

[읽을거리]

17 장과 18 장은 미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되어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가 에브라임 산에 거했다는 사실은 장차 아시리아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될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을 암시해 주는 예언이 깃들여 있기도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천백 세겔을 잃어버리고는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은을 훔친 자는 다름 아닌 미가였는데, 미가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고, 어머니는 어차피 아들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둔 것이므로 도로 주겠다고 말하나 미가는 거절합니다. 미가가 거절하자 어머니는 그 은으로 형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그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린 후 저주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돈이 그녀의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저주를 퍼부은 것은 그녀의 아들인 미가였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았던 그녀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돈은 이처럼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잘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어 꺾었도다(디모데전서 6:10)

그녀는 돈을 찾게 되면서 주께 본래 주께 드리기로 작정된 것이었으니 주를 위해 쓰겠다고 말하면서 형상을 만들고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출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일을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또한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신 12:13,14) 그녀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있으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의 열심은 결국 배도하는 일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열심히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의 각종 문화적인 요인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말씀과 성령이 없이 열심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깨어있는 기도생활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떠돌이 레위 사람(사사기 17:7-13)**

#### **[요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십 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10)

#### **[읽을거리]**

이 레위인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구역을 옮기는 일을 금했습니다(신 12:12). 그러나 이 레위인은 자기의 구역을 이탈하여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확의 십 분의 일을 드려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레위 사람을 방황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말씀과 기도예 전념하려 합니다(행 6:4).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복음 전도자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좋은 조건의 교회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데는 성도들의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성도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레위인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선언한 지파에 속하였지만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풍족한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 말은 레위인들도 이미 그들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전도자들이 더욱 풍족한 삶을 찾아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규모의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교회 안에서 고성

오가기도 하며, 성도들간에 파당이 나누이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일들은 자신의 복음전도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육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부패된 시대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미가가 자신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아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과 종교적인 투자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처럼 종교놀이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관심도 없이 누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며,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큰 교회를 짓는가가 더욱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 일에 목회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규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방황하는 단 족속(사사기 18:1-10)**

#### **[요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그 때에 단 족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 때까지 자기들의 상속의 땅을 다 얻지 못하였음이었더라(1)

#### **[읽을거리]**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였습니다(수 18:1-10). 비록 각 지파는 그 땅을 전쟁을 통하여 얻어야만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소유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약속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의 땅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 땅을 찾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머물러 누리기만 하면 행복한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손쉬운 방법을 찾았고, 무사히 점령해서 살 수 있는 땅, 즉 미가의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을 두려워했던 단 족속은 동족간에 피를 흘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약속 된 땅이었지만 자신들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만 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죄와의 싸움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죄와의 싸움을 중단하고 방황가운데 안식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그는 결국 모두에게 아픔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묻고, 대답하며, 행하자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5,6,10). 결국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 실상은 그들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실상은 전혀 상관없이 있는 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주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려 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매우 가증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운데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을 몰아냅시다.

####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강탈한 단 자손 (사사기 18:11-31)**

[요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의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니라(19,20)

[읽을거리]

미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축복의 보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17:13). 이 생각은 단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운 레위 사람을 데려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600 명과 함께 와서 레위 사람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과연 종교적인 형태를 취해야 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형식과 의식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현대의 교회는 건물과 실내 장식, 그리고 학력과 권위를 지닌 목회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건물도, 의식도, 그리고 세상적인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미가는 자신이 빼앗긴 것들을 되찾으려 했지만 단 자손은 힘으로 그를 위협함으로 돌려보냅니다(25,26). 그들은 주님의 일들을 놓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혹은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장과 신상들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접어둔 채 협박을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분쟁에 휩싸인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건물과 전통을 사수하고, 그들의 목회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레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미가의 도움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되자, 이제는 단 자손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가의 동의 없이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이제는 그의 의해서 한 족속으로 옮겨가는 형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에도 이러한 샅꾼 목자가 많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물질과 명예, 권세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짓 목자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 가라지(독보리)를 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혹하는 세대에 성도들과 목자들은 이들로부터 벗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 **레위 사람의 첩(사사기 19:1-15)**

[요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 쪽에 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더니(1)

[읽을거리]

사사 시대의 말기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때를 왕이 없었던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없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타락의 시작은 언제든지 지도자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그가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첩이 창녀 짓을 행하고 떠나가자 다시 찾아가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간음한 여인을 책망하거나 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죄에 대한 관념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시대를 초월하여 심각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그녀의 집으로 갔을 때 그의 장인은 그를 머물러 두게 하기 위해 오일 동안에 걸쳐 잔치를 합니다. 레위 사람은 가고자 했지만 그의 장인은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레위 사람은 자신의 일들을 잊어버린 채 에브라임을 떠나왔고, 즉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녀의 집에 5 일 동안을 머무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 된 품성을 가진 레위 사람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탈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더니, 이제는 그를 묶어두고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레위 사람의 일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잘 알아 그곳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사사기 19:16-28)

[요절]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취하여 그들에게로 내어 보내니라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밝으려 할 때에 놓아주니라(25)

[읽을거리]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었던 때문입니다. 그때 한 노인에 의하여 그는 거할 곳을 얻게 되었고, 그의 집에서 여정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와 레위 사람을 내 놓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와 성적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사람들이 천사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들과 성적행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회의 타락과 더불어 가는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는 이처럼 동성 연애를 즐기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일들의 명분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성전환 수술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오히려 동정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타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다 냉정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브아에서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레위 사람과 두 천사를 대신해서 첩과 자기의 딸들을 내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아무리 집에 들어 온 손님들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였지만 결코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브아에서는 첩을 내보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밤새도록 옥보이고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성적 욕망이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여자들을 재산으로서의 가치쯤으로 여기는 세상이었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순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어느 시대이나 다를 바 없을 터인데 그들은 여자들을 내보냄으로써 수치와 모욕과 놀림감이 되고, 급기야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내보낸 이들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역시 성적 타락과 더불어 최악 된 시대가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살인, 강도, 각종 폭력 등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각종 계몽 활동을 통해서 줄여보려고 하고 있지만 점차로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가 더욱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인종에 관계없이 소중한 사람들을 바로 인식했을 때에 사악한 죄로부터 나 자신과 사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열 두 토막 시체 사건(사사기 19:29-20:17)**

##### **[요절]**

그가 자기 집에 이르러서 칼을 취하여 자기 첩의 시체를 붙잡아 그녀의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열두 조각으로 나누고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19:29)

##### **[읽을거리]**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이 죽자 그의 시체를 열 두 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음탕하고 어리석은 짓, 즉 살인까지 저지른 일에 대하여 보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20:6).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최악된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나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실상 자신이 행했던 첩을 취한 일과 같은 음란하고 망령된 행위들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음란한 행위와 살인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또한 이미 죽은 시체를 토막을 내는 잔인함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커다란 위선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마태복음 7:3-5)

결국 똑 같은 죄를 저지르고 행하면서도 상대방의 잘못만을 생각하는 모습은 오늘날 부패되어 가는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돌아보지 않고 남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남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레위 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역시 기브아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 민족간의 피를 부르는 싸움으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하여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사건의 경위를 알아 볼 겨를도 없이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온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명분 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명분과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함으로서 결국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명분이 없는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회중의 논리에 휩쓸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동족간의 전쟁(사사기 20:18-48)

##### [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칼날로 치되 모든 도시의 사람들과 짐승과 손에 닿치는 모든 것을 칼날로 치고 자기들이 다다른 모든 도시를 불살랐더라(48)

##### [읽을거리]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누가 먼저 가야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18). 주께서는 친절하게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무도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만 이천 명이 처참하게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물도록 운 후에 다시 묻고(23) 전열을 정비하여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만 팔천 명이 쓰러지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주 앞에 앉아 그 날 저녁까지 금식하고 태우는 헌물과 화평 헌물을 주 앞에 드리고 또 다시 전쟁에 임했고, 이미 전쟁의 승리감으로 자만해져 있었던 베냐민의 군사들을 600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 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아니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그들을 전쟁의 문제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하여 응답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울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더욱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금식까지 하면서 지속적인 전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싸움에서 베냐민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패배하고, 결국 이제는 지파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으시는 싸움을 위해 온 열정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주님이 전혀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에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더욱 조급해져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족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 자기 눈에 옳은 대로(사사기 21:1-25)

[요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5)

[읽을거리]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600 명 밖에 남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을 원하시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를 따라 전쟁을 치름으로써 이처럼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의 결과가 가져다 줄 불행을 알고 계셨고 연합군의 패배를 통해서 예언하셨지만 그들은 이 일의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00 명이 남게 되었던 순간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 또 다시 계락을 세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계락을 세워야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했던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3). 그리고는 또 다시 베냐민을 위하여 저녁 때까지 울며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태우는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게 되고 맹세하지 않은 야베스길르앗 거민들을 진멸하여 처녀 400 명을 데려다 주고(12), 이것도 부족하여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도록 합니다(22).

그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고, 베냐민 지파도 끊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 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때로는 더욱 큰 비극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행한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잘 못 된 일을 발견했을 때 돌이키는 일들을 주저한다면 많은 이들이 더불어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 된 일을 깨달았다면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이웃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